

마태복음 19:16-30, 20:1-16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성경 낭독: 마태복음 20:13-16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 주일에 함께 모여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제 이름은 Vinh이고 저는 Willingdon 교회의 목사 중 한 명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쁨과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19:16-30 - 20:1-16 부분을 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함께 작용하여 (협력하여)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유명한 작곡가 존 윌리엄스(John Williams)는 그의 악보 중 일부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존 윌리엄스(John Williams)는 스타워즈(Star Wars), 인디애나 존스(Indiana Jones), 나 홀로 집에(Home Alone), JURASSIC PARK(쥬라기 공원)와 같은 영화의 트랙을 작곡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의 가장 유명한 악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유명한 악보에는 연주되는 음표가 두세 개뿐입니다. 단순히 E로 시작하여 F가 따라오고, 그리고는 D로 끝납니다.

존 윌리엄스(John Williams)는 계속해서 영화 죠스(Jaws)의 사운드트랙이 단순하고 아름다우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을 경탄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두 개의 간단한 음표가 보는 사람에게 그토록 강렬한 순간을 선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인터뷰의 결론에서 John Williams는 Jaws 사운드트랙의 단순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힘을 잃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의 생각은 사람들이 그 소리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배경 소음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복잡한 그의 다른 악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Jaws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훌륭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단순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 단순하여 그들을 화나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여러분을 경외심과 경이로움 속에 있도록 하나요? 아니면 배경 음악처럼 들리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항복하십시오.
2.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십시오.

3.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십시오.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의 문맥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큰 구역입니다. 마태복음에서 18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께서 지상에서의 마지막 소중한 순간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가르치신 하나의 구역입니다.

지난 주일에 Ray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듯이, 19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4개의 섹션이 있었습니다.

제1권: 왕국의 시민 (5-7)

제2권: 왕국의 사명 (8-10)

제3권: 왕국의 비유 (11-13)

제4권: 왕국 공동체 (14-18)

제5권: 왕국의 충돌 (19-25)

그리고 모든 왕국은 국민, 즉 그 왕국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아래의 항목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도.

왕국 거주자들이 서로 어떻게 함께 생활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왕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점으로 가보시죠.

1. 하나님의 은혜에 항복하십시오.

부유한 젊은 관리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10:17-31과 누가복음 18:18-30에 몇 가지 추가 세부 사항과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젊다'라고 말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는 '부유하다'라고 하며,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관리'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기록을 통해 우리는 그가 젊고, 부유하고, 관리라는 것을 압니다. 모두다 제가 아닌 것들입니다.

우리는 부유한 젊은 지도자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그가 재정적 부를 가지고 있고 도덕적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나중에 22절에서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재정적 부) 20절(도덕적 부)에 따라 몇 가지 계명을 지켰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젊은 관리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는 구원을 얻기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둘째, 그는 예수님이 다른 유형의 선생/랍비였다는 것을 들었고, 아마도 그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마가의 기록에서, 우리는 부유한 젊은 관리가 달려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생님께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신다고 한다면, 그는 오직 정보만 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려와서 무릎을 꿇는 행위는 더 많은 것을 암시합니다.

저는 이 부유한 젊은 관리가 예수께 선하고 정직한 질문을 한다고 믿습니다. 질문은 간단히 말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만큼 충분히 선행할 수 있는가?"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이곳에 새로 오셨고 기독교를 탐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신이 여기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이 예수께 대한 질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어리석은 질문은 없기 때문에 성경의 이 부분은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될 것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곳은 웰컴 센터(Welcome Centre)이며, 여기서 올바른 곳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젊은 부자 관리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선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무엇이 '선행'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선', '좋은'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나는 이것을 전에 한 번 언급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좋은 아침~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afternoon)

안녕하세요. (~ evening)

좋은 생각이야.

좋은 주말입니다.

잘 했어요.

선행.

휴~후련하다.

안녕.

우리는 '좋은'이라는 단어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좋은'이라는 용어 뒤에서 성경이 사용하는 개념을 잃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마태 복음 19:16-30에서는 그 단어를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선하고, 의롭고, 경건한'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는 이상하게 대답하십니다.

저와 함께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무엇이 좋은가"에 대한 언급이 두 번이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유한 젊은 관리에 의해, 그다음에는 예수에 의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가 선한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명제를 바꾸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유한 젊은 관리는 예수와 논쟁하여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둘 다 "선한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에 동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둘 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데 동의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잣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십니다. 그것이 기준선이고, 부유한 젊은 관리와 우리 각자가 비교해야 할 기준입니다.

누가 그러한 표준에 따라 생활할 수 있습니까?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러한 표준에 온전히 합당하게 살게 하심으로 길을 만드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마치 그들이 완전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될 아들의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로라와 저는 언젠가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 법적 유언장을 막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날 때 아이들이 괜찮을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가지지 않았겠지만, 둘 다 내 낡은 코트를 잡고 깊이 냄새를 맡을 만큼 나를 그리워하기를 바랍니다. "아, 그 냄새를 맡으니 아빠가 생각나네요." (그 냄새는 쓰레기통에서도 납니다).

그러나 재정적 상속을 받는 것에 대하여는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를 알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제 아이들은, 우리 모두가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든 나쁘다고 생각하든 간에, 우리가 공유하는 관계 때문에 우리가 남긴 것을 얻을 것입니다.

[요 1:12-13]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와 그 부유한 젊은 관리 사이의 대화가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 젊은이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17절 끝부터 19절 끝까지 예수는 젊은 부자 관리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18절을 보십시오. 그런 다음 예수는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5계명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레위기 19:9-18을 덧붙이셔서 모든 계명을 요약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부유한 젊은 관리에게 하고 계신 일은 그가 놓치고 있는 계명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계명이 빠져 있습니까?

- 다른 신은 없다.

- 우상을 만들지 말라.
-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나 흥미롭게도 빠진 계명은 10번째 계명입니다.

-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는 놀랍게도 지혜로우시며, 부유한 젊은 관리에 대해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그분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내어 그 부자의 생각에 도전하십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마가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그를 보고 사랑하셨다고 덧붙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부요함에서, 또한 선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에서 벗어나서, 은혜로 기쁨과 자유를 가지고 왕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욥, 솔로몬,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살만한 돈이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성경 속 부자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같은 동전의 반대편에는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으로 알려진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중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들을 보여주는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그들을 그 상태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보내심으로 죄 사함의 역사를 행하셨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살리시고 죄와 사망이 정복되었음을 증명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실 것이며, 이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2025년 Willingdon 교회에 오늘 처음 오셨다면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다시 오셔서 연결하고 탐험하며,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희망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쉽고 여러분의 삶이 온전해질 것이라고 말해 드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곳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제 형제자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여쭙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 몇몇 분들에게 왜 예수를 따르기 위해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기꺼이 떠났는지 물어보십시오. 다른 분들에게 왜 그들이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큰 긴장을 기꺼이 겪을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할 때 왜 교회를 섬기는 데 여가 시간을 보내는지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것과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부름은 단지 부유한 젊은 관리만을 위한 부름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예수께 항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분의 구원의 은혜에 당신의 삶을 맡기는 것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십시오.

앞 구절 들에서, 이것이 예수께서 누군가에게 자신을 따르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요청하시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느낄 수 있는 부유한 젊은 관리의 경우라면, 평범한 사람은 어떨까요?

제 말은 부자들은 그들의 부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지 않은 평범한 사람은 자신도 "축복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유한 젊은 관리에게는 자신의 부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가난한 사람에게 좋고 그에게는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 어떠한가요?

예수께서는 경고를 주셨습니다.

[마 13:22]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부를 하나님의 축복의 표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예수께서는 그것을 '영적 진보의 장애물'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요점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23을 봅시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 문구가 있습니다.

- (부자는 천국에 ...) 어려울 뿐이다.
- 낙타... 바늘귀.
-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큰 부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를 구원한다는 생각은 어렵다고 예수는 이전에 말했습니다.

[마 7: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큰 부(富)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하겠지만, 큰 가난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한 업적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의심하고 있을 경우라면,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이 지상에 있는 동안 축복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며,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 사업의 어려움을 알려 주기 위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낙타와 바늘귀의 정신적 이미지를 주십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불가능한 이미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누가복음 19:1-10에는 삭개오라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났지만 그 어디에서도 예수는 그에게 재물을 포기하라고, 그러면 그의 집에 구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삭개오는 예수와의 만남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 자신의 재물을 내놓았고 그의 집에 구원이 찾아옵니다.

구원받는 부자 삭개오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젊은 부자 관리가 있지만,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26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다시 보면, 그분은 단순히 아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없으며, 심지어 당신이 가난할 때조차도, 당신이 구원을 얻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나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에 의해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구원을 행하실 것인가가 그의 중심 초점이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지난여름, 우리 가족과 나는 실제로 Capilano Bridge에 가서 돈을 썼습니다. (사진) 제 아버지는 관중을 끄는 관광 명소 중 하나였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다리는 1889년에 처음 지어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사고 없이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줄을 서고 있을 때, 나는 많은 사람들이 다리 가장자리에 도착했다가 돌아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부분에서는 다리가 전문가에 의해 지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를 걸었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고 있다는 지적 동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가 당신을 지탱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과 자신이 다리 위를 걷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뢰는 그분을 믿는 것 이상이며, 그분을 따르는 것이며, 다리 위를 걷는 것입니다.

당신은 왕이신 예수를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시겠습니까?

세 번째이자 마지막 요점으로;

3.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십시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간단한 비유를 말씀하심으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십니다.

포도밭 주인이 일꾼을 찾으러 나갑니다. 주인은 하루 종일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일부는 하루가 시작될 때 고용하고 다른 일부는 하루가 거의 끝날 때 고용합니다. 그러나 근무일이 끝나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은 덜 일한 사람들과 정확히 같은 급여를 받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불평합니다. 그들의 불평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불공평한가, 왜 그들보다 훨씬 덜 일한 노동자들은 같은 금액을 받을까?”입니다.

‘원망’이라는 단어는 “내가 선하니 너의 눈에 나쁘냐?”로 번역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보십니까? 나의 친구들이여,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된 것이 없노라”라고 스스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잘못을 저지르실 수 없습니다.

이 비유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 이른 아침에 나갔다.
- 제 삼시.
- 제 육시.
- 제 구시.
- 제 십 일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 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할 사람들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교회여, 우리는 이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중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오고 있었지만, 여러분이 포기하는 지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보이고, 계속해서 올바른 대화를 나누고, 계속해서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그분의 포도원에 참여할 더 많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으십시오.

다시 비유로 돌아가서, 저는 우리를 위해 그 단어들을 강조하지는 않겠지만, 노동자, 포도원, 시장, 고용된, 감독, 임금, 일했다 와 같은 단어들에 주목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이 비유에서 두 번 나옵니다. "놓고 서 있는"이라는 단어는 20:3과 20:6에 나옵니다.

제11시가 되어서도 여전히 일하고 싶어 하는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인상적이지 않은 일꾼이었을지 모르지만 주인을 위해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뽑혔을 수도 있지만 보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브렛 목사님께서 저에게 상기시켜 주셨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간과해 왔던 사람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찬송가 "Amazing Grace"의 저자인 존 뉴턴은 노예 무역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전인 1748년에 그는 바다에 있을 때 격렬한 폭풍이 그의 배를 강타했고 뉴턴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주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뉴턴이 응답한 방법 중 하나는 찬송가 "Amazing Grace"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얼마나 감미로운 소리인가,
나 같은 불쌍한 사람을 구해주셨네!
나는 길을 잃은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발견되었고,
눈이 멀었지만 이제는 본다네.

뉴턴은 하룻밤 사이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에 역사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과 오스틴 하이츠의 모든 목사님들이 우리 중 누구도 주님과 왕 예수를 섬길 자격이 없지만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합니다.